

# 중국위협론의 논리 비판 :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의 문제

朴 鴻 緒\*

## 目 次

- I. 서론
- II. 경험적 근거의 개념
  - 1. 중국위협론의 인과논리
  - 2. 경험적 근거의 문제
- III. 중국위협론의 경험적 근거
  - 1. 확고한 경험적 근거
  - 2.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
  - 3. 요약
- IV. 결론: 중국위협론의 "의식적" 연구태도

“경험한 것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추론하는 것은 정당한가?”

- D. 흄<sup>1)</sup>

## I. 서론

“탈냉전기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같이 표현되는 소위 ‘중국위협론’과 그에 대응하는 반중국위협론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의들의 인식론적인 생성경로를 분석하며, 그것을 통해 “과연 중국 위협론은 논리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1)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London: Everyman's Library, 1968), Book I. section vi. p. 93.

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sup>2)</sup>

사실, 과학의 내용은 개별주제라기 보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연구자는 과학의 방법을 통해 과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학의 영역은 하나로 범주화할 수 없는 무한한 재료(material)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과학의 '통일성'은 오직 단순하고 체계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혹은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론은 어떻게 구축되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가 "그 이론의 경험적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문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위협론에 관한 검토 역시 "파편적인"일 수밖에 없는 경험적 내용보다는 그와같은 주장들이 도출되는 방법 및 경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포퍼(Karl R. Popper)와 라카토스(Imre Lakatos)가 제시한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의 문제를 통해서 중국위협론에 관한 각 논의들의 생성경로를 밝히고자 한다.<sup>4)</sup> 우선, 2장에서는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의들이

- 2) 과학적 지식의 논리적 분석은 사실의 문제(칸트의 quid facti?)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당화 또는 타당성의 문제(칸트의 Quid juris?)에 관한 것이다. 다시말해, 언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검사가능한가? 그것은 기타 언명들에 논리적으로 의존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과 모순되는가?이다. Karl R.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New York: Science Editions, Inc, 1961), p. 31. (이하 Logic)
- 3) Gary King,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9.
- 4) 국제관계이론에서 나타나는 최근 논쟁(the fourth debate)의 핵심은 주로 철학 및 인식론에 관한 문제이다. 즉, 합리적 접근법에 대해 포스트모던의 해체주의 접근법이 등장하였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러한 양 접근법간 간격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위협론에 관한 각 논의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rational)"인 접근법에 기반한다. 국제관계이론의 최근논쟁에 관한 문헌으로는 Steve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11-46; Ole Wæver, "Figures of international thought: introducing persons instead of paradigms," in Iver B. Neumann and Ole Wæver, eds., *The Future of Intentional Relations*(London: Routledge, 1997), pp. 1-37; 한편, 최근 국제관계이론에서는 라카토스를 그 방법론적 기준으로 상정하는 연구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Boulder: Westview Press, 1989), ch. 3; Bueno de Mesquita, "The Contribution of Expected-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과적 논리를 설명하며, 그와 같은 인과논리에 필수적인 관찰 언명들의 경험적 근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각각의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중국위협론에 관한 각 논의들을 분류하고 그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중국위협론에 관한 논의들의 방법론적인 문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경험적 근거의 개념

### 1. 중국위협론의 인과논리

한 사건에 인과적 설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편 언명들을 특정 단칭 언명들인 초기조건들과 더불어 연역의 전제들로 사용하여 그것을 기술하는 하나의 언명을 연역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에 기반한다면,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의 역시 국제관계의 일반이론인 보편 언명에 중국의 현실에 관한 단칭언명, 즉 초기조건을 조합하여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연역적인 설명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위협론에 관한 보편언명은 다음과 같다.

패권국가의 쇠퇴와 신흥 도전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패권전쟁을 초래한다(세력

---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Boston: Unwin Hyman, 1989); 최근의 논의로는 John A. Vasquez,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Kenneth N. Waltz, "Evaluating Theories.":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Laktos and Neorealism: A Reply to Vasquez.": Randall L. Schweller,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Stephen M. Walt,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pp. 899-935 참조.

- 5) 예를 들어, "어떤 실의 장력 강도가 1파운드이고 2파운드의 중량이 거기에 실렸다면, 그 실이 끊어진다."라는 이론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 보편언명(universal statement)은 "어떠한 실에 그 실의 장력을 초과하는 중량이 부과되면 끊어질 것이다."이며, 단칭언명(singular statement) 즉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은 "어떤 실의 장력은 1이다."와 "그 실에 2의 중량이 부과되었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보편언명과 초기조건들로부터 실이 끊어지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초기조건은 사건의 '원인'이 되며, 예측은 '결과'가 된다. Karl R. Popper, *Logic*, pp. 59-62.

전이 이론); 세력균형이 부재한 상황은 각국의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국제질서를 위  
 해한다.(세력균형이론); 민주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민주평화이론); 제도의  
 확대는 국제질서를 안정화 시킨다.(제도주의);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는 협력가능  
 성을 증진시킨다.(상호의존론); 국가의 능력(capacity)과 의도(intention)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신자유주의)<sup>6)</sup>

한편, 이러한 보편언명과의 조합을 통해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인 초기조건  
 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기존질서에 반항하는 신흥 도전국이다 혹은 아니다(세력전이이  
 론); 탈냉전기 동아시아는 권력부재상황이다 혹은 아니다.(세력균형이론);  
 중국은 비민주국가이다 혹은 아니다.(민주평화이론); 동아시아에 있어 국제  
 레짐은 부재하다 혹은 아니다.(제도주의); 중국의 대외 경제의존도가 증가하  
 고 있다 혹은 아니다; 중국의 능력과 의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다 혹은 존재한다.(신자유주의)<sup>7)</sup>

6) 패권안정이론은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New Your: Alfred Knopf, 1968), pp. 338-76; Robert Gilpin, "The Theory of Hegemonic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ch. 2; 세력균형이론은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Lond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9), ch. 6 참조; 민주평화이론은 Michael W.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1986, pp. 1151-1169; 제도주의는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ch.1 참조; 복합상호의존은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1987) 참조; 국가의 의도문제는 David A. Baldwin, "Neo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David A. in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New York: Columbia Unibversity Press, 1993), pp. 4-8.

7) 괄호안은 그에 해당하는 보편언명이다. 전체적인 개요는 Avery Goldstein, "Great Expectations: Interpreting China's Arriv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3, Winter 1997/8, pp. 62-69; Gerald Segal,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International Affairs* 73, 2(1997), pp. 236-45; Denny Ro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cum,'" *Survival*, Autumn 1995, p. 50-53. 참조.

결국, 중국위협론에 관한 각 연구는 각각의 보편언명과 그에 대응하는 초기조건(원인)의 조합을 통해 "중국의 등장은 탈냉전기 국제질서를 위해한다(위협론자)거나 그렇지 않다(반중국위협론자)"라는 단칭언명(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통된 인과논리를 내포한 중국위협론의 논리 체계에 대한 분석은 각각의 논쟁들의 관찰언명, 즉 '초기조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여지듯, 각각의 초기조건들은 '중국의 등장'이라는 똑같은 대상을 상이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똑같은 세력전이 이론을 기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의 등장이라는 초기조건을 도전국의 등장이라고 관찰하는 반면, 반중국위협론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단순한 경제력 발전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관찰의 '이론-의존성(theory-laden)'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정상적인 두 연구자가 동일한 물리적 상황과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을 관찰할 때, 그들의 망막에 맺힌 상이 비록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필연적으로 동일한 시각경험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사전지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관찰은 그렇지 않은 관찰과 다르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은 시각적 경험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 경험을 가지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백'으로부터 행해지는 순수한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sup>8)</sup>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단순한 경험적 사실에 따라 초기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각 연구자가 상정하는 초기조건은 관찰의 이론의존성으로 인해 명확히 '참 혹은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여기서 '경험적 근거의 문제'는 이와같은 인식론적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8) 예를 들어, 물리학자와 에스키모가 X선 튜브를 똑같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 R. Hanson, 송진웅/조숙경 역, 과학적 발견의 패턴(서울: 민음사, 1995), ch. 1. 관찰의 이론의 존적 성격에 관해서는 Karl R. Popper, *Logic*, ch 5; A. F. Chalmers, *What is the Thing Called Science?*(Bristol: Open University Press, 1994), ch. 3; Donald Gillies,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Twentieth Century*(Cambridge: Blackwell, 1993), pp. 132-150;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London: Theford Press, 1986), Ch. 6-7; 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ch. 10.

9) 자연과학이론에 있어서도 초기조건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역시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1935년 포퍼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공간에서라면 통계적 법칙(mechanics)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초기상황(initial state)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Karl R. Popper, *Logic*, p. 460.

## 2.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의 문제

경험적 근거의 문제란, 단칭언명 즉 초기조건의 경험적 성격 및 그것이 어떻게 검사되는 가하는 문제이다.<sup>10)</sup> 다시말해, 보편언명(이론)의 확증 혹은 논파를 위해 사용되는 단칭언명(관찰)의 신뢰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적 근거는 '확고한' 경험적 근거와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로 구분할 수 있다.

### 1) 확고한 경험적 근거

확고한 경험적 근거는 관찰언명의 '오류가능주의(fallibilism)'를 배제한다. 즉, 연구자들은 관찰로부터 직접적 지식을 획득하고, 이 직접적 지식에 의해 그들의 '간접적 지식', 다시말해 관찰언명과 같은 한 언어의 기호체계에 표현된 지식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라카토스에 따르면, 지식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확증주의(justificationalism)적 접근'인 귀납주의와 독단적 반증주의(dogmatic falsificationism)는 이와 같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즉, 귀납주의자들은 경험된 사실로부터 이론 즉, 보편언명의 도출을 정당화하며, 독단적 반증주의자들은 비록 귀납의 문제<sup>12)</sup>에서 탈피한 연역적인 추론방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경험적 사실들을 통해 이론을 논파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에 따르면, "관찰언명은 이론을 증명(prove)할 수 없지만, 논파(disprove)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sup>13)</sup>

10) Karl R. Popper, *Logic*, p. 43.

11) 포퍼에 따르면, 과학언명의 정당화는 독단론 대 무한퇴행 대 심리주의라는 '트리렘마(trilemma)'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과학언명을 독단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당화 과정에 있어 다른 언명의 사용은 필연적 무한퇴행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험과학자(논리실증주의)들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과학언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심리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Karl R. Popper, *Logic*, p. 94.

12) 귀납의 문제는 포퍼가 '흄(D. Hume)의 문제'라고 개념화한 논리과정의 문제이다. 즉,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추론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은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반복된 규칙성은 현재와 미래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우연성(contingencies)'을 결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귀납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Karl R. Popper,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31 참조. 한편, 귀납의 문제로 인한 확증주의의 붕괴는 귀납주의자들을 회의주의 혹은 개인성을 추론하는 확률주의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모든 이론은 0의 확률을 갖는다. 즉, 모든 이론은 동등하게 비증명적이고 비확률적이다. Karl Popper, *Logic*, pp. 254-62.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경험적 근거는 상술한 관찰의 이론의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객관적인 관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관찰자의 사전지식에 따라, 관찰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식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험적 사실만을 이용해서는 이론을 확증도, 반증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4)</sup>

## 2)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

확고한 경험적 근거가 간과하고 있는 관찰의 '오류가능주의'로부터 관찰언명에 대한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주의(conventionalism)'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적 근거가 제시되었다.<sup>15)</sup> 즉, 단칭언명의 채택 또는 거부하는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상호간의 '결정'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단칭언명이 한 이론을 검사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하다고 각 연구자들이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연구자이건 간에 '적실한 기술'을 습득한 자는 그 (단칭)언명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경험적 사실을 수용한다.<sup>16)</sup>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수용된 경험적 사실은 '주어진 맥락'에서 '비논쟁적인 배경(unproblematic background)'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17)</sup> 포퍼는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객관적 과학의 경험적 근거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과학은 암반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과학이론들은 늪속에 박혀 있는 각목들 위에 세워진 대담한 구조물과 같은 것이다. 각목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점점 박히지만 어떠한 자연적인 혹은 주어진 근거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이상 각목들을 깎

13) Imre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93-95. (이하 *Programmes*)

14) Imre Lakatos, *Programmes*, p. 100.

15) 듀엠(P. Duhem), 뫼앵까레(H. Poincare)로 대표되는 협약주의는 Donald Gillies,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Twentieth Century*(Oxford: Blackwell, 1993) pp. 73-116 참조. 한편, 방법론적 논파주의는 협약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나 연구자간 협약을 보편언명이 아닌 단칭언명에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약주의와는 다르다. Karl R. Popper, *Logic*, p. 109.

16) Karl R. Popper, *Logic*, p. 99.

17) 방법론적 논파주의는 이와 같은 '비논쟁적인 배경'과 이론의 획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Imre Lakatos, *Programmes*, p. 107.

이 박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각목들이 단단한 바닥에 닿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그 위의 구조물들을 지탱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이와 같은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적 반증주의에서는 독단적 반증주의에서와 같이 단칭언명에 근거한 이론의 결정적인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이론의 구성요소중 하나를 수정함으로써(각목을 조금 더 깊이 박음으로써), 이례로부터 위협받는 이론을 항상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서는 이론의 구성요인이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서처럼, 하나의 가설(H)과 초기조건(I)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설들(H1, H2, H3...)과 초기조건들(I1, I2, I3...)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와같은 이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not O)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설들과 초기조건중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것만을 수정한다면, 이론은 항상 방어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이와같은 재해석이 임의적으로 수행<sup>20)</sup>된다면, 결국 경쟁하는 이론들의 우열을 판별하는 합리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게된다.

포퍼와 라카토스는 이러한 비합리주의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규칙'을 제시한다. 그들에 따르면, “보조가설의 도입이 테스트되는 이론체계의 논파가능성을 증가시키고”<sup>21)</sup> 그럼으로써, “수정된 후이론이 전이론에 비해서 더많은 경험적 내용을 갖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진보적 문제변환

18) Karl R. Popper, *Logic*, p. 111.

19)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pp. 184-86 이러한 후건부정식(modus tollens)을 간단히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 \rightarrow p) \cdot \neg p) \rightarrow \neg t$  여기서 t는 이론들(h)과 초기조건(i)들의 조합, p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과(o)이며  $\neg t$ ,  $\neg p$ 는 각각 그 부정이다. Popper, *Logic*, pp. 75-77.

20) 대표적으로 듀엠(P. Duhem)은 어떤 보조가설이 논파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연구자의 '세련된 감각(good sense)'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Donald Gillies,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Twentieth Century*, pp. 102-108.

21) Karl R. Popper, *Logic*, p. 82-83. 한편, 논파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 이론에서 연역되지 않는 결과가 최소 1개이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논파자(falsifier)의 집합이 클수록 그 이론의 경험적 내용은 증가한다. 또한 이론간 잠재적 논파자의 집합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 두 이론을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된다. 즉, 이론 x의 논파자 집합이 이론 y의 논파자 집합의 진부분집합이라면, y는 x보다 논파가능하고 그에따라 포함된 경험적 내용이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Karl R. Popper, *Logic*, pp. 112-123.



(progressive problem shift)'을 이룰 때에만<sup>22)</sup> 보조가설 및 초기조건들의 수정은 용납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임시방편(ad hoc) 혹은 퇴보적(degenerating) 문제변환은 거부된다.<sup>23)</sup>

이상에서 살펴본 경험적 근거의 문제는 중국위협론을 둘러싼 각 논쟁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가? 3장에서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위협론에 관한 방법론적 분류 및 비판을 시도한다.

### Ⅲ. 중국위협론의 경험적 근거

경험적 근거의 문제를 통한 중국위협론의 분류는 중국의 현실이라는 '초기조건'을 각 주장들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각각의 주장이 묘사하는 중국의 현실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통한 것인가? 혹은 협약주의적 경험적 근거를 통한 것인가?

#### 1. 확고한 경험적 근거

상술한 바와 같이 귀납논리와 독단적 반증주의는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즉, 양자는 공통적으로 단칭언명과 보편언명이 구분가능하고, 순수한 객관적 단칭언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위협론에 관한 역사적인 접근은 귀납논리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단칭적인 사례들로부터, '향후 중국은 위협적일 것이다. 혹은 아닐 것이다.'라는 보편언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다음의 문장은 이러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22)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p. 116-18.

23) 포퍼주의자 라카토스는 경쟁하는 이론의 관계를 고립된 이론과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이론의 연속성(이론들의 시리즈)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포퍼의 이론을 좀 더 세련화했다. 이에 대한 라카토스의 지적은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p. 119, 각주.

24) 중국위협론에 관한 언설이 모두 경험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지도부는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는 일부 反華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다

영국, 일본 및 미국과 소련의 예에서 보여지듯,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압도할 힘이 있는 국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안보가 증진될 때, 실제로 주변국을 억압하였다... 중국 역시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25)</sup>;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은 힘을 신봉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인들을 탄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치 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측면에서 "realpolitik"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주권, 민족적 일치 및 정권유지의 측면은 항상 평화보다 우선시되어 왔다.<sup>26)</sup>

위 문장에서 로이(D. Roy), 번스타인(R. Bernstein)과 먼로(R. H. Munro)는 과거 중국의 대외정책 및 양태를 통해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이 위협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귀납주의적 태도로서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한편, 역사적 사례(단칭언명)로부터, 중국이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다음의 주장 역시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팽창주의자도 침략국가도 아니었다<sup>28)</sup>; 중국의 군사 사상은 평화의 추구, 민족의 일체성추

분히 '음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楊國強, "中美國防部長會談," 『人民日報』, 1998年 1月 20日, 4版; 劉正學 外, "李瑞環會見意參院議長指出有人散布"中國威脅論"別有用心," 『人民日報』, 1998年 5月 20日, 6版; "外交部發言人發表評論美方公布的"考克斯報告"极其荒謬," 『人民日報』, 1999年 5月 26日, 4版. 그러나, 이러한 음모론은 모든 사건의 발생원인을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우연히 초래된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Karl R.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London: Routledge, 1978), pp. 341-42.

25) Denny Roy, "Consequences of China's Economic Growth for Asia-Pacific Security," *Security Dialogue*, 1993, Vol. 24(2), p. 182.

26)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p. 30.

27) 물론, 먼로와 번스타인은 역사적인 귀납논리 뿐만 아니라, 패권안정이론으로부터의 중국의 등장을 가정한다는 측면에서 연역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역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초기조건인 중국의 현실을 중국의 군비증강이라는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역시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위의 글, p. 21, 24, 25, 26 참조. 한편, 중국위협론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도 이와같이 귀납논리와 연역논리가 혼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28) 馬桂花, "美國駐華大使尚慕杰設中國不會對別國構成威脅," 『人民日報』, 1999年 1

구, 방어적이었다. 예를 들어, 孫子가 설파하였듯, 싸우지 않고 적을 복종시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며, 외국의 침입자에 의해 민족의 일체성이 위협받을 때에만 방어 전쟁(非攻)을 했던 것이다<sup>29)</sup>; 고대로부터 중국은 문화적 우월감을 기반으로 변방과의 조공관계를 유지했을 뿐 주변국들을 침략적 목적에서 공격한 적이 없다... 중국의 팽창은 이민족 지배시기 일어났으며... 모택동시기 역시 대외적인 혁명지원에 치중했을 뿐 영토적 팽창정책은 추구하지 않았다.<sup>30)</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역시 '귀납의 문제'에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위양태가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양상이 미래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간주하는 것에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이러한 역사주의적 접근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비논리적인 요인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흠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습' 혹은 '믿음'이 그와 같은 귀납논리를 정당화하는 비논리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위협론이 내포하고 있는 '자기예언(self-prophecy)'적인 성격은 바로 이러한 비논리적 정당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한편, 중국위협론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방법(독단적 반증주의)은 이와같은 역사주의적인 귀납논리와는 달리, 패권안정이론이나 세력균형론과 같은 보편언명을 먼저 전제로 가정하고 그것을 초기조건에 조합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정책을 추론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록 귀납의 문제에서는 탈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경험된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초기조건을 서술한다는 측면에서는 귀납적 접근과 같이 확고한

月 31日, p. 6.

29) Li Jijun, "Traditional Military Thinking and the Defensive Strategy of China," An Address at the United States War College, August 29, 1997.

30) Chen Jian, "Will China's Development Threaten Asia-Pacific Security?", *Security Dialogue*, 1993 Vol. 24(2), pp. 193-94. 역사적 근거를 통한 반중국위협론의 주장은 백창재, "미국의 중국정책," 『현대중국』(가톨릭대; 1997), p. 213; Bruce Cummings, "The World Shakes China,"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6. pp. 28-41; Denny Roy, "The China Threat Issue," *Asian Survey*, August 1996, pp. 763-64 참조.

31) 물론, 역사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추세(trend)'는 존재한다. 그러나 수천년 동안 지속된 추세라 할지라도 단지 향후 10-20년내에 급변할 수 있다. 즉, 추세는 실존언명(existential)이지, 보편언명이 아닌 것이다. Karl R Popper, "Historicism," in David Miller ed., *Popper Selection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 301.

32)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p. 99.

33) 중국위협론의 자기예언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Robert S. Ross,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p. 33.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GNP 및 군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경험적 사실(hard facts)”만을 기초로 중국의 실체라는 초기조건을 추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증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태현 박사의 주장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GNP는 1988년 미국의 14% 수준에서 1995년 미국의 38%로 증가하였으며, 군사비도 1988년 미국의 14%에서 1995년 23%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지역내에서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쉽게 중국을 압도하기 어려운 수준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이 이와같은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내에서 적극적인 주도권 행사를 시도하고, 일부 지역국가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경우 미국에 위협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sup>34)</sup>

한편, 왈드론(Arthur Waldron)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역사적 사례라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패권국가의 현상유지에 도전하는 위협국가로서의 중국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독단적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천안문 사건이후, 중국정권이 대내적 자유화와 대외적인 개방으로부터 억압과 영토회복주의(irredentism)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20년대 워싱턴회의체제시기에 나타났던 중국의 외교행태들—명확한 영토범위의 규정회피, 외교의 무시, 무력의 사용 및 위협을 외교수단으로 이용—은 중국이 현상유지국가가 아니라 현상변경 국가임을 보여준다<sup>35)</sup>

이와같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대응방식과 핵기술 도용 등의 다양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중국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추론하는 논의들에서도 역시 나타난다. 즉, 이들에 따르면;

34) 김태현, “강대국의 부침과 국제질서의 변동,” 『현대중국』 (가톨릭대학교), 1997년 창간호, pp. 32-35. 중국의 군비확장으로 부터 위협론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pp. 24-26 참조.

35) Arthur Waldron,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March 1997, pp. 45-47.

이러한 위협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은 서사군도(Paracel Islands)를 둘러싸고 베트남에 2차례 무력을 사용하였다. (특히) 1995년 Mischief Reef의 점령은 향후 중국이 남사군도로 나아갈 것임을 나타낸다... 중국은 "세력공백(power vacuum)"을 이용, 남중국해에 진출할 것이다<sup>36)</sup>;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염려하게 하였다... 비록 대만해협위기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0-20년후를 생각한다면, 중국의 군비증강을 무시할 수 없다<sup>37)</sup>; 중국의 핵기술 절취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될 것이다.<sup>38)</sup>

한편, 베츠(R. K. Betts)와 로이는 세력균형이론으로부터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으나, 이들 역시 단순한 경험적 사실을 통해 초기조건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의 평균성장률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고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은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25%에만 도달해도 중국의 GNP는 미국보다 많다... 그와 같은 급격한 경제발전은 과거 소련의 군사적 위협 및 일본과의 무역마찰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sup>39)</sup>;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세력공백(power vacuum)'

36) A. D. McLennan, "Balance, Not Containment,"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7, pp. 56-57. 이와 같은 논의로는 Mamdouh G. Salameh, "China, Oil and the Risk of Regional Conflict," *Survival*, Winter 1995-96, p. 145 참조.

37) Gideon Rachman, "Containing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6, pp. 131-32.

38) Dick Lugar, "Threats From China," *The Washington Post*, March 10, 1999, p. A23; John F. Harris and Vernon Loeb, "Spy Case Tests U.S. Openness With China," *The Washington Post*, March 14, 1999, p. A01; 한편, 미의회는 중국의 핵기술 절취에 대한 공식 조사문건인 일명 '콕스보고서(Cox Report)'를 1999년 5월 25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스파이활동을 통해 미국의 핵연구소에서 핵무기와 중성자탄 관련 비밀정보를 절취하였다. 문건으로는 U.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Commercial Concer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hillsource.house.gov/CoxReport/report/welcome2.html>) 이에 대한 보도자료는 *The Washington Post*, May 25, 1999 참조. 한편, 중국은 콕스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미국내 반화세력이 사실을 왜곡, 중국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人民日報」, 1999年 5月 28日, 30日/6月4日子; 國務院新聞辦公室, "事實勝於雄辯, 謠言不攻自破: 再駁《考克斯報告》," 「人民日報」, 1999年 7月 16日.

39) Richard K. Betts, "Wealth, Power, and Conflict: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

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군비증강, 남중국해에서의 정책 및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회피는 역내 새로운 패권국가의 역할을 지향하는 중국의 의도와 부합된다<sup>40)</sup>

여기서 베츠는 세력균형이론을 보편언명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초기조건으로 간주한 후,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향후 중국의 패권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독단적 반증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베츠는 첫문장의 “그렇게 된다면(if they do)”이라는 표현에서와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초기조건인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a ceteris paribus)”는 상황아래서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동일절을 다른 조건절로 치환한다면, 즉 보조가설을 하나 이상 도입한다면 그 초기조건은 더 이상 이론을 논파하거나 혹은 확인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류이다.<sup>41)</sup>

한편, 신자유주의, 민주평화이론, 상호의존론, 제도주의 등의 보편언명과 각각의 초기조건으로부터 중국위협론을 도출하는 논의들에 있어서도 그러한 초기조건을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정당화하는 확증주의적 태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근시일내의 지역패권국가로 예상하는 이유는 국가의 의도는 보통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sup>42)</sup>; 중국이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중국은 3천년의 역사동안 제한된 정부, 인권의 보장 및 사법과 언론의 독립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또한 다수의 의지나, 통치자들의 합의에 의해 운용된 적이 없었다<sup>43)</sup>; 상호의존의 심화속에서 중미간 지적재산권 등을 둘러싼 무역마찰 등은 양국간 정치, 군사적 대립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44)</sup>;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레짐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며, 국제레짐의 창설노력은 국가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sup>45)</sup>

Robert S. 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New York: M. E. Sharpe, Inc., 1995), pp. 31-32.

40) Denny Ro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Survival*, Autumn 1995, p. 53.

41) Imre Lakatos, *Programmes*, pp. 101-02.

42) Denny Ro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p. 53.

43)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앞의 글, pp. 25-26.

44) Gerald Seagal, "How Insecure is Pacific Asia?" *International Affairs* 73, 2(1997), p. 242.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 역시 관찰의 의론의존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중국의 현실이라는 초기조건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것이다.

## 2.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

방법론적 반증주의의 핵심요인인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는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독단적으로 중국의 현실을 추론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논의들은 주어진 경험적 사실들이 비록 자신들의 논의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적 사실이 획득되는 '맥락'을 고려하고 해석함으로써, 경험적 사실들의 독단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태도는 주로 중국위협론을 비판하는 반중국위협론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패권안정, 세력균형론 등의 보편언명의 적용에 있어서는 확증주의자들과 동일하나, 그러한 보편언명에 조합되는 초기조건들의 서술에 있어서는 단순한 경험적 사실들을 통해 중국위협론을 정당화하는 확증주의자들의 전략과는 다르다. 즉, 이들은 다양한 초기조건과 보조가설을 동원하여 중국위협론의 성급한 정당화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Lucian Pye) 교수의 다음 주장은 이러한 접근을 보여준다.

중국에 관한 거의 모든 언명들은 거짓일 수도, 그반대로 모두 참일 수도 있다... GNP가 한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성장여부를 단순히 GNP의 규모로 추론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과연 중국이 실질적 국력의 핵심을 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아직까지 민족 정체성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강대국도 일반적인 민족 국가가 아니다.<sup>47)</sup>

45) Denny Ro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cum,'" p. 51-52.

46) 라카토스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적 사실들에 대한 '항소법정(appeal cour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상반된 경험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 즉각적 판단--독단적 논파주의--을 수용하지 않고, 그러한 판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구자는 '언젠가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Imre Lakatos, *Programmes*, p. 131.

47) Lucian W. Pye, "China: Not Your Typical Superpower," *Problems of Post Communism*, July-August 1996, p. 14.

첫 문장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파이 교수는 중국에 관한 모든 경험적 사실들이 “오류가능(fallible)”하다는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 협약주의적인 경험적 근거를 논의의 핵심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 교수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GNP와 같은 경험적 사실로부터 독단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새로운 초기조건으로 상정한후, 그로부터 “중국은 도전국가도 되지 못한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중국위협론에 관한 각 논의들의 ‘비정합성(inconsistency)’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한편, 구체적으로 중국이 현재 처해있는 경제상황 및 기타 대내적 문제들을 초기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실재를 표현하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계획과 시장의 공존, 지방정부의 간여, 정보유통체계 및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은 중국경제의 투자구조 왜곡현상과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제도의 불안정은 비생산적 경제행위와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소비현상과 물가고 및 실업문제 등 심각한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49)</sup>; 중국의 경제력은 허약한 정치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레닌니즘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는한, 중국의 경제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sup>50)</sup>

첫 인용문에서 오승렬 박사는 개혁개방이래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상황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프리드만(E. Friedman)은 만연된 부패 및 비효율적인 국유기업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중국정치체제의 허약성을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향후 위협적인 대외정책을 초래할 것이라는 단순한 인과가정을 비판하고 있다.

경제부문 이외의 군사/안보 부문에서 있어서도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48) 라카토스에 따르면, 경험적 사실은 이론의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론들간에 “정합성(consistency)”가 없다는 것만을 말해준다.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p. 130. 이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경제력 증강이라는 경험적 사실은 중국위협론을 확증도, 부정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중국위협론과 반중국위협론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각의 보조가설을 이용해서 이러한 ‘비정합성’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9) 오승렬, “중국경제력 현황과 전망,” 『현대중국』 (가톨릭대학교), 창간호(1997), pp. 69-70.

50) Edward Friedman, “Why China Matter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96. p. 305; Thomas L. Friedman, “China’s Choices,” *The New York Times*, March 23, 1999 참조.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다양한 초기조건의 도입을 통해 중국군의 현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가드윈(Pual H. B. Godwin), 길(Bates Gill)과 오할런(O'Hanlon)의 주장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군사력은 맥락속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지도부는 자국의 군사기술이 일본 및 동아시아국가들의 군사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비증강을 1970년대 이래 아시아국가들이 추진한 군사현대화의 한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sup>51)</sup>; 중국군의 단순규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육군에 소속된 2백만의 중국군은 주로 국내질서와 국경방어를 담당하며, 투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군방예산 증가는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사영기업부문을 제약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보상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증가로 보기 어렵다<sup>52)</sup>

위에서 가드윈은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현대화를, 길과 오할런은 중국군의 처해 있는 내대적 상황을 새로운 초기조건으로 가정하고 이로부터 자신들의 논의를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들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및 제 3국가에 대한 무기수출 등과 같은 경험적 사실을 분석하는데 있어 맥락에 따른 다양한 초기조건을 도입함으로써, 성급한 중국위협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군의 대만상륙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만군의 반격 및 미국의 개입 가능

51) Paul H. B. Godwin, "Uncertainty, Insecurity, and China's Military Power,"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7, p. 253. 나이(J. S. Nye)에 따르면,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군사정보기술에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부터 중국의 위협적인 대외정책을 추론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Joseph S. Nye,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Winter 1997-98, pp. 69-70.

52) Bates Gill and Michael O'Hanlon, "China's Hollow Milita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9, p. 56: 왕(Shaoguang Wang)에 따르면, 1993년 중국의 총군비(665億元)는 1978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것은 중국군의 경제활동에 따른 것으로 군사력 증강에 필수적인 연구개발(R&D)비 부문의 증가는 없었다. Shaoguang Wang, "Estimating China's Defence Expenditure: Some Evidence From Chinese Sources," *The China Quarterly*, 1996, pp. 910-11.

성 등으로 인해 對대만 무력사용은 효율적이지 않다... 중국의 제한된 힘의 투사능력으로 볼 때 남사군도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sup>53)</sup>;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인도를 견제하게 하여 중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sup>54)</sup>

한편, 위 문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군의 “힘의 투사능력(power projection)”은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들에 주로 등장하는 초기조건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외향적인 군비증강으로부터 중국군의 전력향상을 독단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군의 실제적인 ‘군사활동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중국군의 실제 전력을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군의 힘의 투사능력을 구체화하고 있는 김태호박사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해군은 연안지역에서의 제한된 초계/방어 임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구축함 18척, 프리깃함 36척을 운용하고 있으나, 신형 구축함과 프리깃함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1970년대의 기술로 건조되었으며 구형 무기 체계, 통신/전자장비 및 항해거리/속도의 제한으로 인해 원거리 해상 작전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해군의 항공부대는 연안방어를 주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500-600km의 제한된 작전반경을 갖고 있는 구형전투기와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지원능력은 원거리 해상작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원거리 해상보급능력을 갖춘 함선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sup>55)</sup>

또한, 당군관계 및 군부의 관료이익에 관한 연구도 중국군의 위협적인 대외행동에 내포

53) Bates Gill and Michael, 앞의 글, pp. 58-61.

54) Robert S. Ross, "Why Our Hardliners Are Wrong,"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7, pp. 44-45.

55) 김태호,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 전망,” 『現代中國』, (가톨릭대학교), 1997년, pp. 100-104; 중국군의 힘의 투사능력에 대한 논의는 Taeho Kim, *The Myth of a "Hegemonic China": The Military Dimension*, in Tae-Hwan Kwak and Melvin Gurtov, eds.,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p. 163-72. David Shambaugh, "China's Military: Real or Paper Tiger?"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1996, pp. 26-28; Paul H. B. Godwin, "Uncertainty, Insecurity, and China's Military Power," pp. 255-56 참조.

되어 있는 관료조직간 이해관계를 새로운 초기조건으로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PLA의 관료이익은 대외정책에서 주요한 변인이다... 실제로 1988년과 1995년의 남중국해의 진주 및 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 훈련 등은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한 PLA의 존재가치를 제고시켰고, 군지도부가 국방예산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PLA는 다른 이익집단들—국가 소유의 사영부문—과의 경쟁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sup>56)</sup>;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은 패권추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해군과 외교부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정책결정과정상의 마찰, 권력이양기 군부의 지지확보라는 국내정치적 필요성 및 공산이념의 쇠퇴를 민족주의로 대치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sup>57)</sup>

한편, 국가의 능력과 의도를 구분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중국의 능력으로부터 중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확증주의자들의 독단적 초기조건을 거부하면서, 중국의 능력과 의도를 구별하는 새로운 초기조건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중국이 21세기초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패권국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will)'가 필요하다... 중국은 1949년 이후, 자국의 안보와 주권문제에만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뿐, 주변국을 점령한적이 없다<sup>58)</sup>; 중국의 능력이라는 단일한 측면으로부터 미래를 추론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더욱이, 중국지도층의 인지틀(mindset)은 기타 강대국으로부터 상당

56) Melvin Gurtov,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Security Policy," in Tae-Hwan Kwak and Melvin Gurtov, eds.,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pp. 13-31; 남사군도에서의 나타난 중국해군의 공세적 행동을 관료조직이론에 기반해 설명한 연구로는 John W. Garver, "China's Push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Interaction of Bureaucratic and Natinal Interests," *The China Quarterly*, Dec 1992, pp. 999-1028 참조.

57) William J. Dobson and M. Taylor Fravel, "Red Herring Hegemon: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7, p. 260.

58) Taeho Kim, "The Myth of a "Hegemonic China": The Military Dimension," pp. 172-74.

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또한, 민주평화이론, 상호의존론 및 제도주의에 기반한 논의에 있어서도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다양한 초기조건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국내문제 및 무책임한 대외행동—지적재산권 침해부터 핵확산 등—은 중앙의 통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다<sup>60)</sup>; 국가간 문제영역의 성격은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 인권 및 대만문제 등의 중미간 마찰이 곧 군사/안보 영역의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sup>61)</sup>; 중국은 남사군도에서 독단적인 군사행동이 ASEAN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즉, 국제무대에서 ASEAN의 정치적 지지, 양측간 경제의존의 심화 및 ASEAN의 군사력 증강등은 중국으로서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sup>62)</sup>

59) Fei-Ling Wang, "To Incorporate China: A New Policy for a New Er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8, p. 69. 한편, 로이는 중국의 '능력'과 '의도'를 연계시키는 접근을 '연성 주장(soft argument)'으로, 반면 의도는 상수로서 대외정책은 항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강성 주장(hard argument)'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비록 어떠한 주장이 우월한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지만, 대중국 정책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연성주장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Denny Roy, "The China Threat Issue," pp. 767-71.

60) David Lampton, "Think Again," *Foreign Policy*, Spring 1998, p. 23.

61) 이것은 곧 각 문제영역간 "대체성(fungibility)"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즉, 문제영역의 성격이 실리적이거나 명목적이거나 혹은 그 문제에 관계되는 국내의 이해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안보/군사 및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대외협력을, 주권문제(대만) 및 가치(인권) 부문에서는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박홍서, "문제영역을 통해 본 탈냉전기 중미관계," 『중국연구』 (한국외대), 제 19권, 1997, pp. 97-121.; 중국이 안보 및 주권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논의는 Thomas T. Christensen, "Chinese Realpolitik,"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1996, pp. 37-52; John Pomfret, "Landscape Shift Knocks China Off Balance," *The Washington Post*, March 14, 1999, p. A 31.

62) William J. Dobson and M. Taylor Fravel, "Red Herring Hegemon: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pp. 262-63. 실제로 중국은 1995년 이후 국제법과 해양법에 근거에서 남사군도 문제를 해결할 것과 남중국해의 안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있다.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73, 2(1997), p. 259.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중국의 중앙-지방관계의 특수한 관계를 새로운 초기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중국을 대외정책에 호전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sup>63)</sup> 두 번째 논의에서는 각 문제영역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초기조건을 도입함으로써, 주권문제와 같은 가치부문의 문제영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과 기타 실리적인 문제영역에서 중국이 수행하는 대외정책은 상이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레짐이론에 기반한 주장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레짐부재라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지역질서의 불안정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비록 완만하나 점증하는 ASEAN의 위상을 초기조건으로 도입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의 독단적인 추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방법론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들은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보다 세련된 연구전략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단순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논파하지 않고, 다양한 초기조건 및 보조가설을 수용하는 맥락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비록 추론의 독단성을 제거함으로써, 확고한 경험적 근거가 직면하는 확증주의의 오류에서 탈피하였다하더라도, 경험에 기반한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협약주의적 경험적 근거는 독단적인 관찰을 통한 성급한 판단을 '연기'시킬 뿐이지 언젠가는 경험을 통해 이론의 진리치에 관한 결심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sup>64)</sup> 만약 이와 같은 평가가 없다면,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어떠한 연구—애드호크 수정(adhoc adjustment)—라도 수용되어야 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조건 및 보조가설의 도입 및 수정으로 도출된 후이론이 전이론보다 "진보적" 혹은 "퇴행적"이라는 평가는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들간의 우열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중국위협론에 관한 연구에 적용시킨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을 '미국의 세력약화'라는 초기조건으로 설명하려는 시도<sup>65)</sup>는 퇴행적이라고 할 수

63) 한편, 초보적인 민주국가형태는 비민주국가보다 더욱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보조가설이 가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퇴색을 공세적 민족주의로 대치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도 새로운 보조가설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Geral Segal, 앞의 글, p. 239.

64)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p. 129.

65) Bates Gill and Michael O'Hanlon, 앞의 글, p. 61.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미국의 세력이 약화되기 이전인 1974년 서사군도에 대한 군사행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sup>66)</sup> 따라서 미국의 세력부재라는 새로운 초기조건을 도입한 다해도 그와같은 수정을 통한 후이론은 중국의 행동에 관한 경험의 양은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다시 균형자로 등장할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초기조건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의도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도 만약 의도가 경험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면, 그러한 연구는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중국의 의도라는 보조가설을 첨부한후, 중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잘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납가능성에 관한 라카토스의 마지막 기준, 즉 그러한 더 많은 경험적 내용이 '확인(corraborate)'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연구는 수용되지 않는 것이다.<sup>67)</sup>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조직모형을 통해서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려는 연구도 그 전이론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이나, 과연 관료조직간 이익확보의 경쟁이 실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범위를 자국의 안보 및 주권문제로 제한하는 연구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전략은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경험적 양을 증가시키고, 또한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등휘 대만총통의 소위 "양국론(兩國論)"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안보문제 및 주권문제라는 초기조건은 전이론 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sup>68)</sup>

66) John Garver, 앞의 글, p. 1001.

67)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중국의 의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적 부문을 제시한 크로닌과 크로닌(A. K. Cronin and P. M. Cronin)의 연구는 주목할만 하다. 그들에 따르면, ① 중국내부의 안정, ② 대대만 정책, ③ 대남중국해 정책, ④ 대한반도정책, ⑤ 대량무기정책 등으로부터 향후 중국의 의도를 테스트할 수 있다. Audrey Kurth Cronin and Patrick M. Cronin, "The Realistic Engagement of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6, pp. 151-58.

68) 이등휘는 7월 9일 '독일의 소리(德國之聲)'와의 접견에서 양안관계를 대등한 국가대 국가의 관계 내지는 적어도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中央日報』(臺灣), 1999年 7月 11日.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국분열책동이 라는 공식담화를 표출하였으며, 이후, 人民日報에는 연일 양국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공식반응은 『人民日報』, 1999年 7月 13日. 양국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蘇格, "「兩國論」是分裂國家的政治賭博," 『人民日報』, 1999年 7月 27日; 李義虎, "「特殊」能豈掩蓋「兩國論」的分裂實質," 『人民日報』, 1999年 8月 5日 참조. 한편, 중국군은 양국론 발언이후 복건성 연해군대에 2급 전투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만에 대한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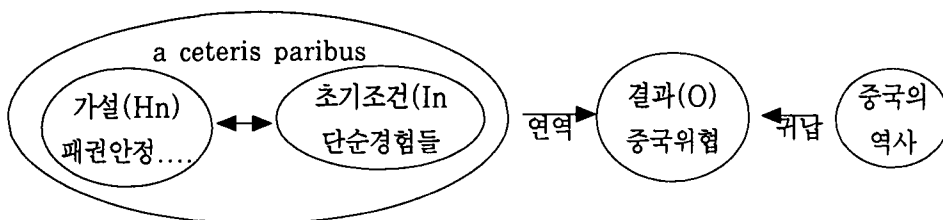
또한, 중국이 처해 있는 경제상황과 중국군의 힘의 투사능력을 새로운 초기조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힘의 투사능력을 통해서 중국군의 실제 전력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그 전이론보다 더 풍부한 경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내용은 실증적으로 검사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영역의 성격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을 상이하게 가정하는 연구전략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제영역의 대체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연구보다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을 더욱 적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설명은 경험적으로 검사가능하기 때문이다.

### 3. 요약

본 논문은 중국위협론의 생성논리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을 시도하였다. 이 글은 최초 “중국위협론의 논리적 생성경로는 무엇이며, 그것은 타당한가?”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기준으로 포퍼와 라카토스가 제기한 ‘경험적 근거’의 문제를 도입한 후, 중국위협론에 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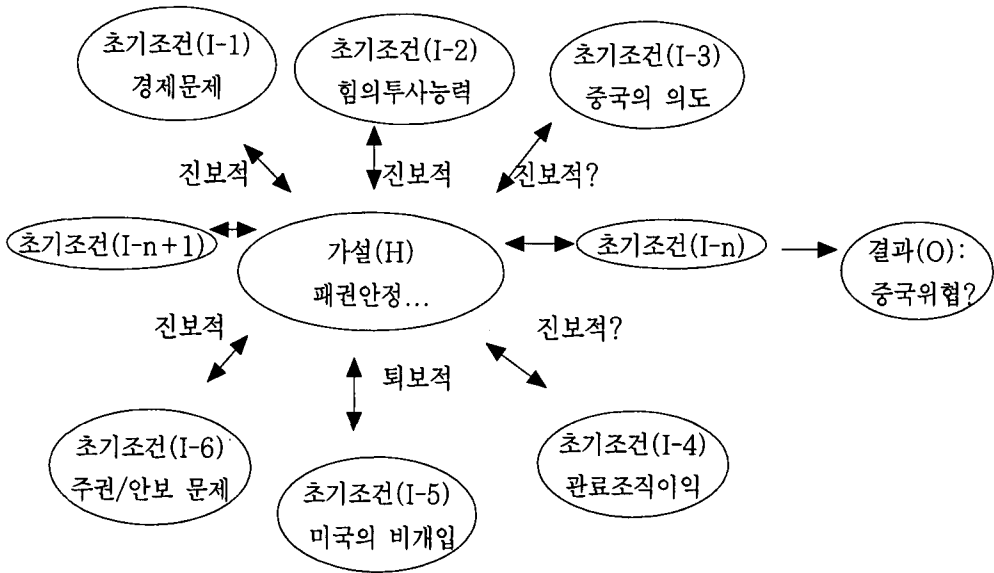
첫째, 확고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중국위협론자들의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로 단순한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중국위협론을 직접적으로 정당화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의들은 논증의 ‘무한퇴행(infinite regression)’에 빠지는 귀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관찰의 의론의존적 성격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위협론의 확고한 경험적 근거

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星島日報』, 1999年 8月2日.

둘째, 협약주의적인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들은 주로 반중국위협론자들의 논의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초기조건과 보조가설을 도입함으로써 확고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중국위협론의 '성급한' 정당화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초기조건과 보조가설을 도입함으로써 과연 그 설명력은 증가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초기조건 및 보조가설은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새로운 초기조건과 보조가설의 도입이 진보적 문제변환을 초래하면 그 연구전략은 수용되며, 퇴보적 문제변환을 내포하면 배제되는 것이다.



[그림 2] 중국위협론의 협약적인 경험적 근거

## V. 결론: 중국위협론의 "의식적" 연구태도

사르토리(G. Sartori)에 따르면, 정치학자들은 소수의 세련된 '과의식적 사색가(overconscious thinker)'와 다수의 '무의식적 사색가(unconscious thinker)'로 구분될 수 있다.과의식적 사색가는 자연과학의 엄격한 방법론에 기반하여 정치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며, 반면 무의식적 사색가들은 그와 같은 방법론에 대한 무지와 무시로 인해 자신들 연구



의 기초적 논리조차도 알지 못한다.<sup>69)</sup>

이런 의미에서 중국위협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무의식적 사색'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위협론이 생성되는 인식론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간과한 채, "중국위협론은 무엇인가?"란 내용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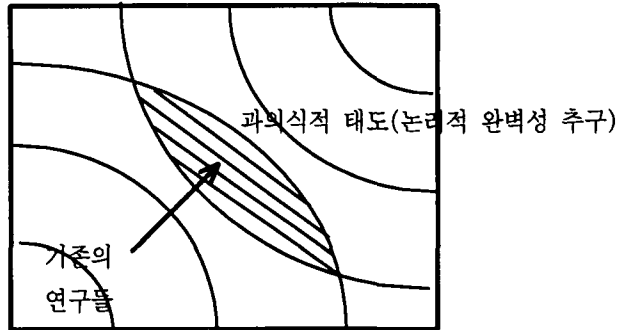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위주의 연구로 인해 기존 연구들간의 상호 비교가능성이 매우 제약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관찰의 이론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각 연구자들은 중국의 성장이라는 동일한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독단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각 논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이 제시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이러한 연구상황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연구전략이 과연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인지 혹은 "수용될 수 없는 방법"인지에 대한 신중한 사색이 부족하였다.

물론, "온도계가 없다면 날씨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경직된 과의식적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의식적 태도는 경험과학의 목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을 '유보'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주류 방법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방법론적 성화(聖化)와 이로 인한 지식의 화석화(化石化)도 방법론의 개방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sup>70)</sup>

그렇다면, 중국의 등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향후 과연 어떠한 연구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사르트리가 제시하고 있는 '의식적' 연구태도는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태도는 아래 [그림3]와 같이 사회과학의 모든 연구전략의 조합을 아래 사각형으로 간주했을 때, 아무런 기준없이 경험적 사실을 독단적으로 수용하는 무의식적 태도와 기준없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과의식적 태도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9) Giovanni Sar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70, p. 1033.

70) 방법론의 성화 및 지식의 화석화에 대해서는 김웅진,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서울: 인간사랑, 1996), 1장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방법론간 '편가르기'를 거부하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자를 자처하는 파이어아벤트의 논의에 따르면, 방법론의 선택 및 적용에 있어서 유일하게 선택되어야 될 '규범'은 "무엇이든 괜찮다!(Anything goes!)"는 것이다. Pual Feyerabend, *Against Method*, p. 28.



[그림 3] 중국위협론의 의식적 연구태도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위협론의 경험적 근거에 대한 분석은 내용위주로 경도되었던 무의식적인 기존연구들을 보다 논리적인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언설의 '체계'만을 강조하는 과의식적 사색을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선 중국위협론의 인식론적인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각 논의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한 논의들의 경험적 사실(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논리와 내용 모두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위협론에 관한 연구는 보다 적실한 연구를 위해 ① “중국위협론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 방식은 타당한가?”, ② “어떤 논의가 중국의 대외정책을 더욱 적실하게 예측하는가?”라는 두가지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록 엄밀한 방법론적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들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분류학적 개념용기 (taxonomic conceptual container)”를 도출하고, 중국의 실제라는 경험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와 같은 과정을 공유한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상호간 논리적 타당성 및 경험적 적실성의 우열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응진. 『방법론과 정치적 실존』. 서울: 인간사랑, 1996.
- 김태현. "강대국의 부침과 국제질서의 변동." 『現代中國』. 창간호. 가톨릭대. 1997.
- 김태호.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 전망." 『現代中國』. 창간호. 가톨릭대. 1997.
- 박홍서. "문제영역을 통해본 탈냉전기 중미관계." 『中國研究』. 제 19집. 한국외대. 1997.
- 백창재. "미국의 중국정책." 『現代中國』. 창간호. 가톨릭대. 1997.
- 오승렬. "중국경제력 현황과 전망." 『現代中國』. 창간호. 가톨릭대. 1997.
- N. R. Hanson. 송진웅/조숙경 역. 『과학적 발견의 패턴』. 서울: 민음사, 1995.
- 國務院新聞辦公室. "事實勝於雄辯, 謊言不功自破: 再駁<<考克斯報告>>." 『人民日報』. 1999年 7月 16日.
- 李義虎. "「特殊」能豈掩蓋「兩國論」的分裂實質." 『人民日報』. 1999年 8月 5日.
- 劉正學 外. "李瑞環會見意參院議長指出有人散布「中國威脅論」別有用心." 『人民日報』. 1998年 5月 20日.
- 馬桂花. 「美國駐華大使尙慕杰設中國不會對別國構成威脅」. 『人民日報』. 1999年 1月 31日.
- 蘇榕. "「兩國論」是分裂國家的政治賭博." 『人民日報』. 1999年 7月 27日.
- 楊國強. "中美國防部長會談." 『人民日報』. 1998年 1月 20日.  
『人民日報』. 1999年 5月 26日, 28日, 30日/ 6月 4日/ 7月 13日.  
『中央日報』(臺灣). 1999年 7月 11日.  
『星島日報』. 1999年 8月 2日.
- Baldwin, David A. "Neo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David A. in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bversity Press, 1993.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 Betts, Richard K. "Wealth, Power, and Conflict: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 Robert S. 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New York: M. E. Sharpe, Inc., 1995.
- Chalmers, A. F. *What is the Thing Called Science?*. Bristol: Open University Press, 1994.
- Christensen, Thomas T. "Chinese Realpolitik." *Foreign Affairs*. September / October 1996.
- Cronin Audrey Kurth and Patrick M. Cronin. "The Realistic Engagement of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6.
- Cummings, Bruce. "The World Shakes China."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6.
- Dobson, William J. and M. Taylor Fravel. "Red Herring Hegemon: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7.
- Doyle, Michael W.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1986.
- Elman, Colin and Miriam Fendius Elman. "Laktos and Neorealism: A Reply to Vasquez."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 Feyerabend, Pual.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Theford Press, 1986.
- Friedman, Edward. "Why China Matter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96.
- Friedman, Thomas L. "China's Choices." *The New York Times*. March 23, 1999.
- Garver, John W. "China's Push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Interaction of Bureaucratic and Natinal Interests." *The China Quarterly*. Dec 1992.
- Gillies, Donald. *Philosophy of Scienc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 Blackwell, 1993.
- Gilpin, Robert. "The Theory of Hegemonic War." in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Gill, Bates and Michael O'Hanlon. "China's Hollow Milita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9.
- Godwin, Paul H. B. "Uncertainty, Insecurity, and China's Military Power."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7.
- Goldstein, Avery. "Great Expectations: Interpreting China's Arriv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3. Winter 1997/8.
- Gurtov, Melvin.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Security Policy." in Tae-Hwan Kwak and Melvin Gurtov, eds..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 Harris, John F. and Vernon Loeb. "Spy Case Tests U.S. Openness With China." *The Washington Post*. March 14, 1999.
- Hume, David. *A Treatise of Human Nature*. Vol 1. London: Everyman's Library, 1968.
- Keohane, 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Macmillan, 1987.
- Kim, Taeho. "The Myth of a "Hegemonic China": The Military Dimension." in Tae-Hwan Kwak and Melvin Gurtov, eds..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7.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1974.
- Lakatos, Imre.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Lee Lai To. "East Asian assessments of China'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73, 2. 1997.
- Li, Jijun. "Traditional Military Thinking and the Defensive Strategy of China." An Address at the United States War College. August 29, 1997.
- Lampton, David. "Think Again." *Foreign Policy*. Spring 1998.
- Lugar, Dick. "Threats From China." *The Washington Post*. March 10, 1999.
- Mesquita, Bueno de. "The Contribution of Expected-Utility Theory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Manus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 McLennan, A. D. "Balance, Not Containment."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7.
- Nye, Joseph S.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Winter, 1997-98.
- Organski, A. F. K.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Knopf, 1968.
- Pomfret, John. "Landscape Shift Knocks China Off Balance." *The Washington Post*. March 14, 1999.
- Popper, Karl 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Science Editions, Inc, 1961.
- .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Routledge, 1978.
- . David Miller ed.. *Popper Selectio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Pye, Lucian W. "China: Not Your Typical Superpower." *Problems of Post Communism*. July-August 1996.
- Rachman, Gideon. "Containing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6.
- Ross, Robert S.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 . "Why Our Hardliners Are Wrong." *The National Interest*. Fall 1997.
- Roy, Denny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Survival*, Autumn 1995.
- . "The China Threat Issue." *Asian Survey*, August 1996.
- Salameh, Mamdouh G. "China, Oil and the Risk of Regional Conflict." *Survival*. Winter 1995-96.
- Sartori, Giovann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70.
- Schweller, Randall L. "New Realist Research on Alliances: Refining, Not Refuting,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 Smith, Steve.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Vasquez, John A. "The Realist Paradigm and Degenerative versus Progressive Research Programs: An Appraisal of Neotraditional Research on Waltz's Balancing Pro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 Waever, Ole. "Figures of international thought: introducing persons instead of paradigms." in Iver B. Neumann and Ole Waever, ed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Routledge, 1997.
- Waldron, Arthur.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March 1997.

Walt, Stephen M. "The Progressive Power of Re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9.

-----, "Evaluating Theo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97.

Wang, Fei-Ling. "To Incorporate China: A New Policy for a New Era."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8.

*U.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Commercial Concer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ana* (<http://hillsource.house.gov/CoxReport/report/welcome2.html>)

*The Washington Post*. May 25. 1999.